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중부도서관)의 경우 -

An Analysis on the Tasks of a School Library Support Center: A Case Study of JungBu Public Library of Ulsan Metropolitan City

권 은 경(Eun-Kyung Kwon)**

김 종 성(Jong-Sung Kim)***

< 목 차 >

I. 머리말	V. 도서관 운영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II.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VI. 지원센터의 과제와 지원 방향
III. 학교도서관 자원 현황	VII. 맺는말
IV. 도서관 담당교사의 특성	

초 록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된 울산중부도서관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지원해야 할 업무, 지원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교육청의 2009년도, 2010년도 학교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였고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 업무의 종류와 중요도를 식별하였다. 지원 업무에는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정책적 지원으로 인력 지원, 장학체계 확립, 도서관 자원 확충, DLS 센터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등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업무 지원으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외부강사 정보 풀 운영, 지원 협력 체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키워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학교도서관 협력, 학교도서관 정책,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functions of the School Library Support Center of the Ulsan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are based on the 2009 and 2010 statistics of the school libraries in the Ulsan Metropolitan City,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onducted for teacher librarians and the class teachers who manage their school libraries without a Library Science degree. The proposed tasks of the School Library Support Center fall into two categories: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Administrative tasks include assigning teacher librarians to schools, expanding library resource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ervision system for both school libraries and student reading programs. Practical tasks include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informing library program providers to school,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about the Center's services.

Keywords: School Library Support Center, School Library Policy, Cooperation of School and Public Libraries, Teacher Librarian

*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립중부도서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0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I. 머리말

1. 연구 목적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 탄생하게 된 학교도서관 지원 기구이다. 학교도서관은 활성화사업 기간 동안 전에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특성상 여전히 도서관 중에서 가장 소규모이며 예산, 시설, 장서, 그리고 인력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사업을 통해 쇠신된 학교도서관의 유용성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기 이전부터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전통을 발판으로 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시·도교육청보다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교육청에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 내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 지정된 울산중부도서관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지원해야 할 업무, 지원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지만 특정 지역의 학교도서관만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보편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타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학교도서관 현황과 업무 상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2009년도, 2010년도 학교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중부도서관)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 지표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 서비스 자원인 예산, 시설과 설비, 인력, 장서 그리고 서비스 결과의 하나인 대출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데이터 중 명확하게 오류 데이터로 판단된 경우, 수정 및 보완하여 분석하였다.¹⁾

둘째, 기존에 수집된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없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

1) 오류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산 항목에서 금액의 단위(천원)를 무시한 경우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 만족도, 요구 등에 관한 질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된 설문지를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의 내역을 학교급별 및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의 구성

	구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 계
초등학교	빈도	20	28	18	12	30	108
	%	9.8	13.7	8.8	5.9	14.7	52.9
중학교	빈도	8	13	7	12	12	52
	%	3.9	6.4	3.4	5.9	5.9	25.5
고등학교	빈도	7	11	9	4	10	41
	%	3.4	5.4	4.4	2.0	4.9	20.1
기 타	빈도	1	-	-	2	-	3
	%	0.5	-	-	1.0	-	1.5
합 계	빈도	36	52	34	30	52	204
	%	17.6	25.5	16.6	14.8	25.5	100.0

2010년도 울산광역시의 학교수는 초등학교 118교 중학교 61교 고등학교 51교로 총 233교이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율은 초등학교 91.5%, 중학교 85.2%, 고등학교 80.4%이며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전체 학교의 87.6%가 참여하였다. 행정구역별 참여비율은 동구가 34개교 모두 참여하여 100%로 가장 높고 북구가 41개교 중 30개교가 참여하여 73.2%로 참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설문조사는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http://www.ksdc.re.kr/databank/>)의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7.0 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급과 행정구역 등을 변인으로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현황 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담당교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운영현황 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여 조사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어 지역과 학교급을 안배하여 추출한 담당교사 9명(초등학교 4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2010년 5월 12일 16시부터 19시까지 울산중부도서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작성된 면접 질문들을 활용하여 연구팀, 중부도서관 담당팀, 조사대상 교사들이 동석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운영현황 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로 표출되지 않은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구체적으

로 확보할 수 있었다.

II.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1. 기능과 역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2항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에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지원센터를 학교도서관 협력망센터²⁾로 지정하여 함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 개발 보급,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 등의 연수 강화,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학교도서관 관련 협력체제 구축³⁾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도서관 리모델링, 장서개발 및 자료조직, 운영 자료 보급, 인력 연수, 현장 문제 해결,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광범하게 포함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설치된 현실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즉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환경 여건은 개선되어 이용이 늘고 있으나 사서교사의 부재로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물론 교육청 산하에 상술한 학교도서관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청, 공공도서관, 또는 교육청 소속의 유관 기관에 설치되어 있으며⁴⁾ 어느 기관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표방하는 기능과 역할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청과 공공도서관 사이에 지원센터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효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지원센터의 운영 유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업무 지원 활동은 지원센터 설치 이전부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간의 협력 및 지원 체제는 크게

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1항.

3) 교원복지지원국(교육복지기획과), 2008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안)(2008. 6), p.8.

4) 충남 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표센터가 설치되고 15개 공공도서관이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http://news.naver.com/mail/read.nhn?mode=LPOD&mid=etc&oid=0002537931>〉 [인용 2010. 8. 9].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⁵⁾

첫째는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공공도서관 중심 체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은 도서관 네트워크 일환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매우 이념적인 당위성에서부터 공공도서관에는 전문 인력의 숫자나 경험이 풍부하므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 용이하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독서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운영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둘째로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경우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영향력으로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며, 학교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시켜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학교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모델개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지역교육청에 사서직이 배치되면 전문성에 기초하여 도서관 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공공도서관 중심의 경우 학교의 내부 실정 파악이 어려우며 학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원·협조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 두 도서관의 기능이 다르므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업무지원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고유 역할 특히 '도서관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교육' 등의 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 교육청 중심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의 실정을 공공도서관 사서보다는 잘 알 수 있으나 지원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며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없다면 지역 교육청에 배치된 소수의 사서로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일반직 사서의 배치로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 관련 장학지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예상된다.

그런데 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규명에서 “누가” 지원센터의 책임을 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원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지원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력 부족에 따른 단순한 업무지원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할 것인가? 교육청이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인식없이 단순히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일손돕기의 수준에서 일상 업무 지원만을 생각한다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대증적 대응방안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학교도서관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겨우 활성화의 불씨가 지펴진 학교도서관 상황에서는 어느 한 편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책 및 행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작성한 로드맵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업무를 지원하여야 학교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이용남,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7. 6), p.366.

Ⅲ. 학교도서관 자원 현황⁶⁾

1. 예산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이 둘을 합한 도서관 총 예산은 <표 2>와 같다. 자료구입비를 학생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2010년도 자료구입비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16,900원으로 고등학교 13,100원의 129%, 중학교 11,000원의 154%로 중학교에 비해 1.5배 정도 많은 셈이다. 2010년도의 이 금액은 2009년도에 비해 고등학교는 9.7%, 초등학교 5.9%, 중학교 22.9% 증가한 셈이다. 중학교의 자료구입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운영비는 학교 평균과는 완전히 역순으로 초등학교가 4,200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500원, 고등학교 3,100원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적다.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도서관 총 예산으로 보면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초등학교 21,100원, 중학교 14,500원, 고등학교 16,200원이다. 총 예산을 2009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중학교는 19.8%, 고등학교 11.0% 증가하였다. 중학교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2010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자료구입비, 도서관운영비, 도서관 총 예산

(단위: 천원)

구분	빈도	자료구입비	도서관운영비	도서관 총 예산
초	114	16.9	4.2	21.1
중	60	11.0	3.5	14.5
고	48	13.1	3.1	16.2

초등학교의 도서관 예산이 고등학교의 131%, 중학교의 145%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학교 도서관이 그러하듯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초등학교에 쏠려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구입비나 운영비에서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학교도서관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적 발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중앙값이 평균값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절반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이 각각 10,000원, 11,000원 이하이고 초등학교의 절반은 12,600원

6) 이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도서관 예산, 면적, 인터넷 PC, 인력, 장서, 대출 현황은 2009년 4월과 2010년 4월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다. 본문과 표의 년도는 모두 보고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분석된 내용은 전년도의 현황이다. 2009년도, 2010년도의 변화를 대응검정하기 위하여 2개년도 모두에 데이터가 입력된 학교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목 마다 학교수에 차이가 있다.

이하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서관간의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예산면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도서관이 많다는 사실이다.⁷⁾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서관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3〉 2010년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도서관 예산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빈도	도서관 총 예산 비율	자료구입비 비율	도서관 운영비 비율
초	114	3.1	2.5	0.6
중	60	3.7	2.8	0.9
고	48	3.5	2.8	0.7

모든 학교급에서 도서관 총 예산은 3.1%에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⁸⁾ 자료구입비는 2.5%에서 2.8% 사이로 교육부의 3% 권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도서관 면적과 인터넷 가능 PC수

학교도서관 평균 면적은 초등학교 147.2㎡, 중학교 143.8㎡로 교실 두 칸보다 약간 큰 정도이다. 고등학교 도서관은 평균 면적이 266.0㎡로 교실 네 칸 정도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교실 35칸 크기의 최대값과 중앙값을 참고하면 평균 면적은 교실 세 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숫자만으로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도서관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학교의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에 비해 15% 정도 많다는 점과 중학생의 체구가 초등학생보다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학교 도서관이 초등학교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당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PC수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5.2, 중학교 3.7, 고등학교 5.7대로 이 숫자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중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요구는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왕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당 평균 3.7대로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다. 여기에 중학교의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 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숫자이다.

7)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등 기술통계분석 내용은 논문의 면수가 제한되어 참고사항으로만 기술하였다.

8) 중학교의 도서관 예산은 학생 1인당으로는 타 학교급에 비해 가장 낮으면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서

가. 도서

예산의 증가는 그대로 장서 증가로 이어졌다. 2009년과 2010년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의 평균 도서수는 8,725.8권에서 10,984.3권으로 25.9%, 중학교는 6961.8권에서 8230.4권으로 18.2%, 고등학교는 9120.5권에서 10866.5권으로 19.1%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4>에서 보듯이 학교당 평균 도서수는 2009년도에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으나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앞서고 있다. 2010년도 학생 1인당 평균 도서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8.2권으로 중·고등학교의 약 13권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통계의 중앙값을 참고하면 2010년도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50%는 학생 1인당 도서수가 10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값에 비해 평균이 높다는 것은 결국 도서가 많은 소수의 상위권 도서관에 의해 평균값이 상향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이 전체 학교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평균을 보기보다 전체적인 분산 정도를 살펴보고 평균보다 영세한 도서관이 얼마나 많으며 어떻게 장서확충을 모색할지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학교 및 학생당 평균 도서수

구분	빈도	2009 총 도서수	2010 총 도서수	평균증감	t 값	p 값	
학교 평균	초	113	8,725.8	10,984.3	2,258.5	16.478***	0.000
	중	60	6,961.8	8,230.4	1,268.6	6.304***	0.000
	고	47	9,120.5	10,866.5	1,746.0	8.737***	0.000
학생 평균	초	113	27.9	28.2	0.3	0.043	0.966
	중	60	10.1	12.6	2.5	6.887***	0.000
	고	47	10.6	12.5	1.9	3.672***	0.001

*: p < 0.1, **: p < 0.05, ***: p < 0.01

나.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자료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장서를 말할 때 도서, 즉 단행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와서 비도서자료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학교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독률은 초등학교 6.3종, 중학교 4.1종, 고등학교 8.1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통계의 중앙값을 감안해 보면 초등과 중학교는 2~3종, 고등학교는 7~8종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도서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속간행물 구독에서도 중학교가 가장 낮은 구독률을 보이고 있다.

비도서자료는 비디오자료와 DVD/CD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학교당 평균 비도서자료의 수는

초등학교 211.7점, 중학교 145.7점, 고등학교 127.0점이다. 그런데 비도서자료 역시 중학교를 제외하면 평균이 중앙값의 2배를 넘는다. 즉 각급 학교의 50%는 평균 비도서자료의 절반 정도 밖에 소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 도서관의 50%가 75.5점 이하의 비도서자료 밖에 소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비도서를 보유한 상위권 학교들로 인하여 전체 평균이 중앙값의 거의 3배에 가까운 211.7점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도시와 도시주변 거주지의 학교에 따른 학생수의 차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무교육제도 내에서 학생들이 교육과 문화의 균등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인력

학교도서관의 인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관 담당교사(일반 교과교사), 학부모 명예사서, 학생 도서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비정규직의 사서를 비롯한 다양한 인력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서교사, 학부모 명예사서, 학생 도서부를 분석하였다.

가. 사서교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임용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수는 2009년도 14명, 2010년도 16명이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학교에 대한 사서교사 배치율은 6.9%이다.

〈표 5〉 울산광역시 교육청 사서교사 현황

		초	중	고	특수	합계
2009	학교수	116	61	49	3	229
	사서교사수	4	6	4	0	14
	배치율(%)	3.5	9.8	8.2	0.0	6.1
2010	학교수	118	61	51	3	233
	사서교사수	5	7	4	0	16
	배치율(%)	4.2	11.5	7.8	0.0	6.9

나.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부

학부모 명예사서의 수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많다. 초등학교는 학교당 평균 25명이고 중·고등학교는 6.0, 1.0으로 미미하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중앙값이 1명과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는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도 학부모 명예사서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당 평균 학생 도서부원의 수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초등학교의 학생 도서부원은 10명에서 7.5명으로 줄어들었고 중학교는 21.5명에서 19.8명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는 17.4명에서 19.2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도서부원은 20명 정도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IV. 도서관 담당교사의 특성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전문 인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물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교도서관의 역량을 더 키우고 이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당장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은 인력수급에 관한 현황과 함께 현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의 특성으로 담당 학년과 교과목, 교직 및 도서관 경력, 담당 계기, 업무 연수 등을 분석하였다.

1. 담당 학년과 교과목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는 특정 학년에 치우쳐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과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각각 19.6%, 17.8%로 상대적으로 약간 많은 편이며 교과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 9.4%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는 대부분 국어/한문 교과 담당교사로 중학교 83.0%, 고등학교 60.0%이다. 그 밖의 교과는 중학교에서는 대부분 사서교사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가 외국어 계열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는 거의 국어(한문) 및 어학 계열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직 및 도서관 경력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평균 교직경력은 10.5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1.7년과 12.7년, 그리고 중학교는 6.0년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담당한 경력은 평균 2.2년으로 도서관 업무에서는 거의 초보자 수준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통계 분산도를 보면 도서관 담당 총 경력 2년 미만이 전체의 72.5%인 14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담당교사들이 도서관 담당 경력이 오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맡게 되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높은 반면에 스스로 원해서 맡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밖에 되지 않았다. 스스로 원해서 담당한 비율은 초등학교(11.1%)와 중학교(5.8%)에 비해 고등학교(2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 담당교사의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도서관 업무에서의 경력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도서관 담당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능동성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담당교사 연수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연평균 7.7시간의 연수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8.1시간)와 중학교(8.2시간)에 비해 고등학교(6.3시간) 교사들의 연수 참가 시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평균과 별도로 연수 시간별 통계 분산도를 살펴보면 전체 담당교사의 79.4%는 연간 6시간 이하의 연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담당교사의 연수 시간은 평균 시간에 훨씬 못 미치며 연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 6〉 희망 연수 내용

(n=204, 복수응답)

	전체		학교급							
			초등		중		고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료 선정 및 수집 방법	36	6.7	22	8.0	6	4.2	7	6.4	1	14.3
자료 분류 및 목록 작업	39	7.3	20	7.3	9	6.3	8	7.3	2	28.6
DLS 사용 방법	80	15.0	37	13.5	20	13.9	21	19.3	2	28.6
도서관 이용교육 방법	30	5.6	13	4.7	8	5.6	9	8.3	0	0.0
장서점검 및 폐기 방법	67	12.5	39	14.2	21	14.6	7	6.4	0	0.0
도서관 행사 운영 방법	89	16.7	47	17.2	26	18.1	16	14.7	0	0.0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	108	20.2	56	20.4	28	19.4	23	21.1	1	14.3
도서관 활용수업 요령	80	15.0	38	13.9	24	16.7	17	15.6	1	14.3
기타	5	0.9	2	0.7	2	1.4	1	0.9	0	0.0
합계	534	100.0	274	100.0	144	100.0	109	100.0	7	100.0

* 학교급에서 기타는 특수학교(3교)임.

교사들은 도서관 관련 연수의 유용성에 대해 5점 척도에서 초등학교 3.5, 중학교 3.2, 고등학교 3.6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담당교사들이 원하는 연수의 내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2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 행사 운영 방법, DLS 사용법, 도서관 활용수업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선정과 수집 방법, 자료분류와 정리 방법, 도서관 이용교육 방법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담당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이 도서관 운영의 기본 업무보다는 독서교육이나 행사에 관련된 것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도서관 운영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1. 도서관 개방 시간

평균적으로 학교도서관은 평일기준으로 1일 5.47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1시간, 중학교 5.1시간, 고등학교 4.2시간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개방 시간이 줄어들었다.

담당교사의 도서관 재실 시간은 1일 평균 1.9시간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들은 하루에 평균 2시간 미만으로 도서관에 머문다는 것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도서관 개방 시간과는 달리 담당교사의 재실 시간은 초등학교 1.6시간, 중학교 2.2시간, 고등학교 2.2시간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학교급에서 하루에 한 시간도 도서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담당교사도 있고 중앙값이 1시간으로 많은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 교사들이 도서관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거나 다른 보조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서관 담당 교사들은 일반 교과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당 평균 21.3시간의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보조 인력 운영 현황⁹⁾

가. 학부모 명예사서

대부분의 학부모 명예사서는 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인원이 극

9) 도서관 담당교사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명예사서의 평균수는 초등 20.1명, 중 4.9명, 고등 2.1명, 그리고 학생 도서 부원은 초등 4.6명, 중 19.6명, 고등 19.6명으로 통계자료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히 적다. 학부모 명예사서의 주당 활동시간은 초등학교가 5.9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고등학교는 7.0시간, 중학교는 9.0시간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무려 3시간이나 길게 나타났다. 명예사서 인원이 많은 초등학교가 1인당 봉사 시간은 짧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학부모 명예사서의 오리엔테이션은 50%의 학교에서 기본 업무만 간단하게 안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27.2%였으며 학부모 명예사서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학교가 11.4%였다. 대부분의 학교가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 없이 업무에 대한 간단한 안내만으로 학부모 명예사서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이 활발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는 응답이 38.1%로, 중학교 17.0% 고등학교 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원 확보(18.8%), 교육 및 연수(18.8%)이며 그 다음으로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16.6%), 보상체제 부실(14.9%), 인간관계(13.8) 등이 뒤를 이었다. 활동 공간 문제나 운영 예산 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를 보면 고등학교는 인원 확보, 교육 및 연수가 각각 31.3%로 가장 어려운 요소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명예사서가 도서관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가 5점 척도에서 4.4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4.1, 고등학교는 3.1로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학생 도서부 운영

학교당 학생 도서부원수는 초등학교는 평균 5명 미만인 반면 중·고등학교는 약 20명 정도이다. 학부모 명예사서가 초등학교에 활성화 되어 있다면 학생 도서부는 중·고등학교에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도서부 오리엔테이션 방법은 절반 이상(55.3%)의 학교에서 기본 업무만 간단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부 조직이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는 학교는 각각 17.3%와 18.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업무만 간단하게 안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서부가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 도서부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0.6%), 교육 및 연수(27.1%)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중학교에서

는 교육 및 연수가 고등학교에서는 지도와 통솔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출 현황

대출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교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치우쳐진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활용 정도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 대출자수와 대출책수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교도서관의 대출자수는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열람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대출자는 도서관의 실제 이용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학교도서관의 대출자수는 그 도서관의 절대 이용자수를 측정하기 보다는 도서관 간의 상대적 비교나 연도별 추이를 살피는 데에 더 유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의 학교도서관 대출 통계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이외에 지역 주민의 대출 통계도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학생들의 대출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표 7〉은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의 모든 이용자의 학교당 평균 대출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대출 경향을 보면 2009년도 통계에 비해 2010년도 통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출이 감소하였는데 초등학교에서 6.5%, 중학교에서 46.9%,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7.8% 감소하여 특히 중학교에서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현상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학교당 평균 대출자수

구분	빈도	2009 대출자수	2010 대출자수	평균증감	t 값	p 값
초	88	7,565.0	7,075.3	-489.7	-0.584	0.560
중	49	4,493.3	2,386.1	-2,107.2	-1.491	0.142
고	42	4,333.4	3,127.0	-1,206.4	-1.919*	0.062

*: $p < 0.1$, **: $p < 0.05$, ***: $p < 0.01$

그런데 〈표 7〉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 즉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등을 포함한 대출 통계이므로 순수한 학생들의 대출 정도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2009년도 8월 1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의 대출 내용을 이용자별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학생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86.2%, 중학교 84.3%, 고등학교는 90.3%이다. 이를 〈표 7〉에 적용하여 12개월로 단순 외삽하여 학생 1인당 년간 평균 대출횟수를 추정 계산해보면 초등학교생 8.5회, 중학생 2.5회, 고등학생 3.0회 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운영이 가장 활발한 초등학교에서

조사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대출하지 않고 있다.

4. 도서관의 교육 활동

학교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용교육, 활용수업, 독서행사 등으로 나누어 실태와 담당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도서관 이용교육

평균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은 1.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1.6시간, 중학교는 1.1시간, 고등학교는 1.3시간으로 학교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균 교육시간과는 별개로 교육시간의 통계적 분산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72.4%인 147개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1시간 이하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관 담당교사가 49.5%로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가 28.4%, 학부모 명예사서 11.8%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에 따른 경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관 담당교사가 실시하는 경우는 27.8%이고 담임교사 46.3% 학부모 명예사서 19.4%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 담당교사가 이용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11.5%로 나타났다.

나. 도서관 활용수업

한 학기(2009년도 2학기)동안의 도서관 활용수업 시간을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40.5시간이며 초등학교(42.2시간) 중학교(44.8시간)에 비해 고등학교(30.0시간)는 도서관 활용수업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평균은 40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분산도에서 활용수업이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학교의 50.7%인 103개교에서는 한 학기에 10시간 이하로 활용수업을 하고 있으며 몇몇 소수 학교에서 활용수업을 많이 함으로써 평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에서 79.4%의 응답자가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것, 5.9%가 활용수업 방법과 사례 개발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순위 선택에서는 교과교사의 수업부담 경감(22.5%)과 활용수업 방법과 사례 개발 보급(2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의 개선과 확장, 도서관 자료의 확충이 뒤를 이었다.

다. 독서 행사

연간 독서 및 도서관 행사는 학교당 평균 4.1회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4.7회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2회, 고등학교 2.7회였다.

통계적 분산을 살펴보면 독서 및 도서관 행사를 20회, 30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도 있어서 평균치가 높아졌지만 전체의 70.4%인 153개교에서는 1년에 4회 이하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중에서는 다독자 및 다독반 표창(26.1%), 독후활동대회 및 전시회(25.2%), 독서퀴즈대회(23.5%) 등을 주로 많이 하고 도서(원화) 전시회(2.0%), 문학기행(0.7%), 강연회(1.8%) 등은 상대적으로 자주 하지 않는 행사로 나타났다. 다독자 표창, 독후활동대회, 독서퀴즈대회 등을 선호하는 것은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독서 및 도서관 행사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바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인 반면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의 7.4%는 독서 및 도서관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행사에 대한 부담이나 어려움, 또는 효과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면 독서 및 도서관 행사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전략적이며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도서관 자원에 대한 인식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자원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5점 척도 기준으로 2.9로 나타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비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전체 평균이 3.1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약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도서관 서비스 자원에 대한 인식 정도

	평균	학교급		
		초	중	고
운영비	2.9	2.9	2.9	3.0
자료구입비	3.1	3.2	2.8	3.2
시설/환경	3.0	3.1	3.0	3.0
장서의 규모	2.9	3.2	2.6	2.8
장서의 질	3.3	3.3	3.3	3.2

장서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9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도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장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3.3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서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시설, 자료는 도서관 서비스 자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것은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6. 업무 난이도에 대한 인식

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장서점검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점검은 전문 사서들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일이며 고려사항이 많은 복잡한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아 되는 결과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료 폐기 업무도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힘들게 생각하는 업무는 도서관 행사와 관련한 업무들이다. 외부 강사 섭외 및 행사 기획, 진행 등이 어렵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지도(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서가 정리와 자료 분류 및 DB 입력은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DLS 사용, 대출 반납 업무 등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업무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업무 난이도에 대한 인식

	전체	학교급			
		초	중	고	기타
1) 자료 선정	3.5	3.6	3.4	3.3	3.3
2) 자료 주문과 구입	3.3	3.3	3.2	3.1	3.0
3) 자료 분류, DB 입력	3.5	3.6	3.4	3.2	3.7
4) DLS 기본 사용법	3.0	3.0	3.0	3.1	3.3
5) 서가 정리	3.6	3.6	3.4	3.5	3.0
6) 장서 점검	4.1	4.1	4.3	4.0	2.7
7) 자료 폐기	3.8	3.8	3.9	3.8	3.3
8) 대출, 반납	2.6	2.6	2.4	2.8	3.3
9) 행사 기획	3.8	3.7	3.9	3.7	4.3
10) 행사 진행	3.8	3.7	3.9	3.7	4.3
11) 외부강사 섭외	4.0	3.9	4.1	4.0	3.3
12) 도서관 이용교육	3.3	3.3	3.2	3.3	3.0
13) 독서지도(교육)	3.6	3.4	3.6	3.8	3.7
14) 도서관 활용 수업	3.7	3.6	3.9	3.6	3.3

7. 학교 경영자와 동료 교사들의 이해와 관심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 경영자의 이해와 관심이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다소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표 10〉 도서관에 대한 학교 경영자 및 동료교사의 인식 수준

	평균	초	중	고
학교경영자	3.7	3.8	3.8	3.4
동료 교사	3.2	3.4	3.1	3.1

학교 경영자의 인식 수준에 비해 동료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긍정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지원 및 협력

가. 교육청 지원 사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 2 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순위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전담인력(사서교사) 확충을 응답한 비율이 88.2%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운영예산 확대(31.9%)와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9.9%)이 가장 높았다.

나. 외부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외부 지원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3%는 외부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외부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 42.6%로 가장 높았다. 공공도서관 외에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담당교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으로는 DLS 사용법 교육이 21.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정서점검과 폐기 업무가 16.1%, 예산 지원이 14.8%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자료분류 및 DB구축 업무(9.1%), 자료선정과 구입 업무(8.3%), 학부모 명예사서나 학생 도서부 교육(8.3%) 등과 관련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지원(3.5%), 독서지도(3.5%), 도서관 이용지도(3.5%), 순회문고 및 집단대출 서비스(3.0%), 도서관 활용수업(2.2%) 등에서는 그다지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은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들은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응답(5점 척도로 3.9: 초 3.9, 중 3.9, 고 3.8)하였다.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업무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순위에서 자료선정과 구입, 장서점검과 폐기 업무를 지원받기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자료 분류 및 DB 구축, 교육 및 특강 강사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종합해 보면 장서점검과 폐기,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지원,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부 교육, 자료선정과 구입, 자료 분류 및 DB 구축, 도서관 활용수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업무 내용 중 1순위로 선택된 것만 보면 학교급에 따라 다소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도서관 활용수업, 장서점검 및 폐기, 학부모 명예사서 교육 등에서, 중학교는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지원, 장서점검 및 폐기 등에서, 고등학교는 자료선정과 구입, DLS 사용법 교육 등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공공도서관 지원 희망 업무 내용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료선정과 구입	62	10.1	40	19.6	13	6.4	9	4.4
자료 분류 및 DB 구축	62	10.1	21	10.3	25	12.3	16	7.8
도서관 활용수업	56	9.2	15	7.4	19	9.3	22	10.8
도서관 이용지도 교육	28	4.6	7	3.4	10	4.9	11	5.4
DLS 사용법 교육	39	6.4	16	7.8	14	6.9	9	4.4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지원	74	12.1	23	11.3	31	15.2	20	9.8
장서 점검 및 폐기	90	14.7	40	19.6	24	11.8	26	12.7
교육 및 특강 강사 지원	66	10.8	19	9.3	24	11.8	23	11.3
학부모 명예사서/학생 도서부 교육(오리엔테이션)	71	11.6	16	7.8	26	12.7	29	14.2
순회문고 및 집단대출 서비스	13	2.1	0	0.0	8	3.9	5	2.5
독서지도 활동	42	6.9	6	2.9	10	4.9	26	12.7
기타	9	1.5	1	0.5	0	0.0	8	3.9
합계	612	100.0	204	100.0	204	100.0	204	100.0

Ⅵ. 지원센터의 과제와 지원 방향

이상의 통계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에서 식별된 지원 업무를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과 업무적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정책은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따라 행정력을 발휘하여 지원해야 하는 과제이고, 업무적 지원 활동은 시교육청과 함께 지원센터인 공공도서관이 실행해야 하는 실천과제이다.

1. 정책적 지원

가. 사서교사 확충 및 인력 지원 정책 수립

아무리 지원센터가 업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교육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배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조사 연구에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선결 과제는 사서교사 확충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향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학생 1,500명 당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울산광역시 초·중·고등학생 수는 193,982명이기 때문에 울산에는 총 129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담 인력을 제외하더라도 11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법에서 명시된 기준에 맞추어 인원을 배치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담당교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담당교사들의 도서관 재실 시간을 늘이고 효율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경감하는 방법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당교사들에게 필요한 도서관 업무와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청의 장학체계 확립과 서비스 자원 강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한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데 독서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중부도서관)에 위임되어 있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활동 및 행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학체계를 확립하여 혼선과 중복을 없애고 실질적인 지원 업무는 지원센터(공공도서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자원인 예산, 시설, 장서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도서관 자원이 양적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 장서면에서 평균값보다 낮은 영세 학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 중학교 강화 정책 시행

이 조사 연구에서 특히 중학교 도서관의 예산, 면적, 인터넷 PC수, 장서, 그리고 대출 등 모든 면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교육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배양은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환경이나 독서교육 활동은 열악하고 위축되어 있다. 시교육청과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중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도서관 학습 프로그램이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도서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중학교 도서관의 장점을 살려 도서부 연합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독서캠프, 작가 초청강연회 등 체험적이며 실제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 DLS센터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현재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중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고 DLS센터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 DLS센터는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DLS 활용 연수와 업무상 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중부도서관)는 업무 지원과 함께 학부모 명예사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두 기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수 및 지원 기관이 분리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와 DLS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업무 지원

가. 보조 인력 운영 체제 강화

전담 인력 배치가 미미한 학교도서관에서는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부 등 보조인력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학교도서관 개방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도서관 기본 운영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

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부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부모 명예사서 연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센터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차후에는 기본적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 도서부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면서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조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연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개별 학교의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에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사서교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담당교사 연수 내실화

사서교사를 제외한 도서관 담당교사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고 연수 내용도 요구에 맞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 담당교사들은 장서 점검 및 폐기, 도서관 행사에 대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도서관 활용수업, 장서점검 및 폐기, 학부모 명예사서 교육 등에서, 중학교는 독서 및 도서관 행사 지원, 장서점검 및 폐기 등에서, 고등학교는 자료선정과 구입, DLS 사용법 교육 등에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필요성을 느끼는 업무에 대하여 뿐 아니라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교사 연수를 특화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의형 연수보다는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실시하는 실무형, 체험형 연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외부강사 정보 풀(pool) 운영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조 인력을 교육하기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담당교사들은 외부 강사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이용교육을 담당해줄 사서나 사서교사, 독서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해줄 수 있는 작가나 전문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강사 풀을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연결해 주거나 파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 경영자 및 교사 대상 도서관 연수 실시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 경영자와 일반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도서관 연수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도서관 정책과 사업에서 무척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연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여건이 되면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서관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교육을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교사들이 도서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이해와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 지원 협력체제 홍보 강화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은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원센터(공공도서관)는 공공도서관의 지원 체제와 활동에 대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담당교사가 바뀌는 학년 초에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지원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Ⅶ. 맺는말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 중부도서관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업무와 업무의 우선순위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년도, 2010년도 학교도서관 통계자료와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의 자원과 운영 현황 및 도서관 담당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원센터의 업무 규명이 사서교사 및 도서관 전담 인력 부족이라는 현안에서 출발하였다고 해서 대응적인 인력 지원 업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적 업무 지원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책임을 맡은 공공도서관으로서도 노력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던지 학교도서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될 공공도서관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책적 지원과 업무적 지원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책적 업무는 교육청이, 업무적 지원은 지원센터인 공공도서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에는 사서교사의 확충, 도서관 담당교사의 수업시수 감

면, 연수 기회 확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학 체계의 확립, 예산 시설 장서 등 도서관 서비스 자원 강화, 학교도서관 중 가장 열악한 중학교 도서관에 대한 대책 수립, DLS 센터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지원센터가 설치된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에는 전담 인력에 대한 대안 인력으로서 학부모 명예사서와 학생 도서부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도서관 담당교사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서 행사 등에 필요한 외부강사 정보 풀 운영, 학교 경영자 및 교사 대상 도서관 연수, 지원 협력 체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많은 지자체의 경우 사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인 공공도서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센터의 책임을 맡은 공공도서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협력과 지원의 내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